



소리주보

연중 제33주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2020. 11. 15. (가해) 제2241호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마태 25,23)



‘탈렌트의 비유’, 빌렘드 푸어 터, 17세기, 프라하 나 로드니 갤러리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탈렌트의 비유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목처장 | 안상호 요셉 신부

‘탈렌트의 비유’라고 불리는 오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탈렌트’라는 선물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떤 자세로 활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각자에게 맞는 각기 다른 탈렌트, 즉 선물을 주십니다. 복음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탈렌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두 탈렌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탈렌트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받았느냐 하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은 충분히 잘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각자가 받은 능력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서는 누구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진 능력이 크든 작든 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유에 등장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을 주목하게 됩니다. 다른 두 종과는 달리, 이 종만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화를 두려워하고 노력도 하지 않은 종에게서는 그 어떤 발전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벌을 받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게으른 종은 탈렌트를 받은 후 그대로 땅에 묻어 두었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받은 탈렌트를 잃지는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기가 받은 탈렌트는 다른 사람들보다 적은 것이기에 노력한다 한들 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노력할만한 가치도 없다고 미리 포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재능을 적게 받았다 하더라도, 선한 일을 위해서 노력과 모험을 전혀 하지 않은 게으른 종을 책망하시면서, 노력하다 잃는 것이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탈렌트의 비유’를 통해 삶에 대한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이 얻게 된다는 것과, 반대로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탈렌트, 즉 재능과 능력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하나님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일에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잘 써야만 그 능력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연중 시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죽음과 심판을 자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분의 약속에 희망을 두고서 인내하며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을 ‘탈렌트의 비유’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합당한 자세로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이고, 심판자이신 주님을 잘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필요**

“가난한 이에게 네 손길을 뻗어라” (집회 7,32)

“가난한 이에게 네 손길을 뻗어라.”(집회 7,32)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그 충분한 의미 그대로 울려 퍼지면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오롯이 바라보고 무관심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는 시련 속에서도 계속 하느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이루는 연대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에 드는 예배를 거행하려면, 가장 가난하고 멸시받는 이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 안에 하느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호의를 실천할 때 우리는 하느님 축복의 선물을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가 함께 이루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해 주시고 기도의 지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도우려면,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이 직접 복음적 가난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실, 교회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사랑을 증언하고 실천합니다. 손길을 뻗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손길을 뻗는다는 것은 하나의 표징, 곧 친밀함, 연대, 사랑을 곧바로 연상시키게 하는 표징입니다. 전 세계를 고통과 죽음, 절망과 혼돈에 빠트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 최근 몇 달 사이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까!

감염증의 세계적 확산 상황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 왔던 것들을 불현듯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하여 의문이 들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돕고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형제애가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에게 네 손길을 뻗어라.” 이 말씀은, 자신이 공동의 숙명에 동참하고 있음을 느끼는 인간으로서 저마다 지닌 책임감으로 부르는 초대입니다. 이 말씀은, 가난의 상황에 아무 감응 없이 주머니에 손 넣고 서 있는 자들의 대조적인 자세를 부각시킵니다. 흔히 이러한 자들이 가난의 상황을 조장한 공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그들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호의의 손길과는 판판입니다. 죽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손들이 온 세상을 위한 정의와 평화의 도구로 바뀔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가난한 이들과 만나는 이 여정에서 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모님께서 각별히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봉사하는 모든 이가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 전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 하느님 말씀 따라

“즐기도 즐길시고~” (시편 133,27)

대구주보 2021년 상반기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 원고 모집



천주교 대구대교구 문화홍보국에서 발행하는 하늘나라 복음선포 대구주보에서 내년도 주보 원고를 공모합니다. 2021년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교구장 대주교님의 사목방향에 따라 교구민들과의 일치를 이루고 대구주보를 사랑해 주신 교우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앙생활의 기초이자 길잡이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한 에피소드나 개인이 모토로 삼고 있는 성경 말씀, 또는 가정 안에서 성경 가훈을 실천해 가는 진솔한 모습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하느님 안에 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 속에서 격려와 위로, 힘을 얻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제 및 내용 | 입교, 선교 등 기존의 신앙 수기 형식이 아닌 성경 말씀을 기초로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상 안에서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고 체험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교구 설정 100주년 성구로 삼은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를 주제로 삼는다면 이를 실천해 온 선행사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이사 43,5)를 주제로 삼는다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 있게 극복한 사례 등이 해당됩니다.

형식 및 분량 | 수필형식의 글로 분량은 한글 12포인트 크기 A4 1페이지 분량으로 제한하며 분량이 초과될 경우 제외되거나 편집 시 수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함과 세례명, 소속 분당, 연락처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기간 및 방법 | 2020년 12월 31일(목)까지 대구주보 이메일 jubo@dgca.or.kr로 보내주시거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심사를 거쳐 여섯 작품을 선정, 매월 대구주보 4면에 게재될 예정이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궁금하신 점은 교구 문화홍보국 주보담당 053)250-3048~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홍낙민 루카 (1751~1801년)

홍낙민(洪樂敏) 루카는 1751년 충청도 예산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충주와 한양으로 이주해 살았다. 그리고 1776년에는 양근의 유명한 학자 권철신 암브로시오의 제자가 되었으며, 4년 뒤에는 진사가 되고, 1788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들어서게 되었다. 1839년의 순교자 홍재영 프로타시오는 그의 아들이다.

그에 앞서 루카는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이승훈 베드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또 한때는 지도층 신자의 일원으로서 다른 신자들에게 성사를 집전한 적도 있었다. 이는 당시의 신자들이 성직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교리와 교회법을 잘 알지 못하던 상황에서 행한 잘못이었다. 다행히 이러한 행위는 오래가지 않았다.

1791년 신해박해가 일어난 뒤, 루카는 임금의 명에 따라 천주교 신앙을 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기도 생활을 계속하였고,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 재(齋)를 지키기도 하였다.

1794년 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한 다음해, 루카는 성사 받을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을묘박해가 일어나 체포되자 두려운 나머지 천주교를 배척하는 상소를 올렸다. 여기에서 그는 “천주교의 폐해는 흉수나 맹수보다 심하므로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홍낙민 루카는 다시 교리를 실천하기 시작하였다. 1799년에 모친상을 당해서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신주(神主)도 모시지 않았다. 그러나 겉으로는 여전히 천주교를 멀리한 것처럼 보였다.

2년 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마자 루카는 동료들과 함께 체포된 후 의금부로 끌려가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때 그는 두려운 나머지 처음부터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심계에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라고 가르친 것은 옳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결코 동료들을 밀고하지 않았다.

혹독한 문초와 형벌이 계속되는 동안 루카는 여전히 용기를 내지 못하여 유배형을 받게 되었다. 그러다가 점차 이전에 보이지 않던 용덕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재판관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변하였다.

“저는 천주교 신앙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억지로 사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10년 동안 이를 멀리하였으니 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제는 천주교를 버릴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지도 않겠습니다.”

이처럼 굳게 신앙을 증거한 루카는 마침내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런 다음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가 1801년 4월 8일(음력 2월 26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서	잠언 31,10-13,19-20,30-31	제 2 독서	1테살 5,1-6	복 음	마태 25,14-30.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향기가 되어~ 예쁜 엽서 & 성탄 카드 전시회

문화홍보국에서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게 지내온 모든 분들께 격려와 위로,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나누고자 코로나 극복 『예쁜 엽서&성탄카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접수: 11.8(일) ~ 27(금) / **전시:** 12.14(월) ~ 25(금) 교구청 일대 /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6~9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및 지난주(11월 8일, 연중 제32주일) 주보 6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품해 주신 작품 가운데 우수작은 별도로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던 <위대한 침묵>의 세계,
그 후 15년, “세상은 변해도 십자가는 우뚝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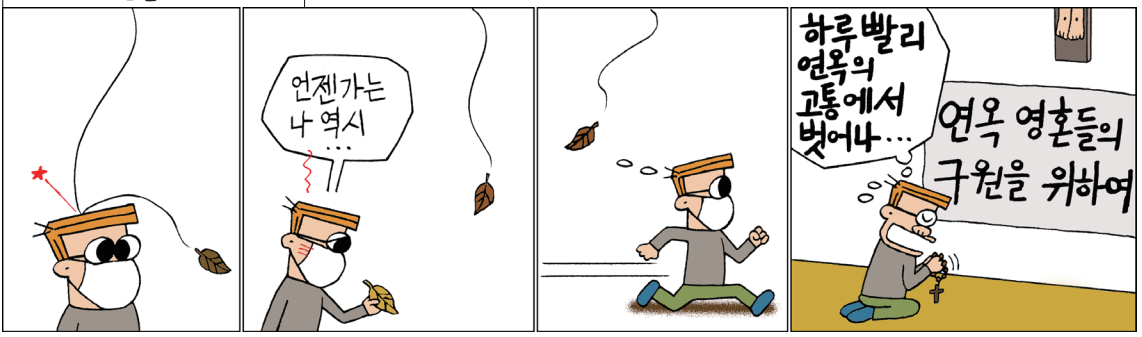
영화 <봉쇄수도원 카르투시오> 11월 19일 개봉

경북 상주에 있는 아시아 유일의 카르투시오 봉쇄수도원의 아름다운 사계절과 11명 수도자들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작년 KBS 성탄특집으로 방영된 <세상 끝의 집 - 카르투시오 봉쇄수도원> 3부작의 극장판이 개봉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상영관 및 시간은 개별 극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죽음을 묵상하며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11월 16일(월) 10:30 범어성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6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1월 16일(월) 11:00 평화성당	미바회 월례미사	11월 21일(토) 11:00 성모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1월 16일(월) 11:00 계산성당	-	-

성소 | 피정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11.21(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11.21(토) 15:00
장소: 서울 예수회 관구 본부
주제: 예수회의 민족화해활동
강사: 김연수 신부(북한학 박사)
문의: (010)8498-9593

주말 성령묵상회

일시: 12.13(토)~14(일) / 12.19(토)~20(일)
시간: (토) 13:00~18:00 / (일) 9:30~18: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차량: 설화명곡역 (토) 12:00, (일) 8:50
비용: 12만원 / 문의: (010)9045-0191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전례 피정

일시: 12.23(수) 16:30~25(금) 13:30
장소: 성베네딕도 왜관피정의집
비용: 24만원, 대구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 (010)6791-0071

교육 | 모집 | 기타

제26기 뿌에리 간또레스 합창단 모집

대상: 초3~초6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밀알회 후원회원 모집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에 함께해주세요.
문의: 422-3411(내선 1번)

부부 둘만의 힐링 여행 대구ME 주말

381차: 11.27(금)~29(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플루트, 색소폰, 연필초상화, 제대꽃꽂이, 오카리나, 서양화, 사범자격과정꽃꽂이, 미술심리상담사, 섬유공예, 우쿨렐레,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과 합창: 월, 목 14:00 / 19:00
대구CEO합창단: 화, 수 14:00 / 19:00
장소: 평생교육원(용산역 도보 5분 거리)
문의: (010)3512-1565
코로나로 임시 정원 5명(기초이론포함)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분노조절 상담지도사(온라인과정) 수강생 모집

자격: 만 19세 이상 누구나 가능
강의: 매월 1일 개강, 총 3개월 과정 (90시간 이수) / 신청: (02)2164-6587~8
<http://catholic.maumjikim.com>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 과정

원서마감: 2021.2.10(수)
과목: 성서, 교의, 전례 등 26과목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천주성삼병원 보험공단검진

가족행복의 시작은 국가건강검진입니다.
일반검진, 암 검진
문의: 790-0660~1(8:30~17:30)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505-10-218514-9
문의: 650-3529

대구연세안과
백내장 / 노안 / 라식 / 녹내장 / 황반변성
대표원장 / 의학박사 (원 연세대 외과교수) **박중원** (소시모)
안과전문의 **장주현** (비비안나) · **이무일**
효성병원 옆 대동M타워 4,5,6층
☎ 053)626-8881~5

백합식품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옛날!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100% 국산콩으로 만드는 우리의 정맛
수녀원 메주,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대추즙
백합식품 본사 053)857-2037
서울 02)2202-8392 대구 053)257-1771
www.spcfood.co.kr

남창·이명은
밝은귀보청기 & 청각재활센터
대학병원급 최신 검사 및 피팅 장비 보유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 석사/청농사
최준우 (미카엘)
상담 및 청력검사 문의 010-6481-8848

건강검진은 **전인병원**
5대암검진 일반건강검진
대표전화 | 1688-7667

SM **수맥홍집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 1588-5335

우보한의원
백반증 | 아토피 | 두드러기 | 건선
지루성피부염 | 기타피부질환 | 비염
대구시 중구 명덕로 193 코스모스빌딩 7층
원장 박재영(루카) 실장 김소영(유스티나)
TEL. 053)427-8080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권영조(마르코) 신부
1965년 11월 16일
- 남대영(루도비코) 신부
1972년 11월 17일
- 류홍모(안드레아) 신부
1948년 11월 18일

행사 | 모임

11월 예비신학교 모임(고3~대학일반)

일시: 11.22(일) 14:0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제46회 대구가톨릭 미술가협회 정기전

일시: 11.17(화)~22(일)

오프닝: 11.17(화) 18:00

장소: 범어대성당 드망즈갤러리

주제: 주님은 나의 힘

문의: (010)9674-7563

전례꽃꽂이연구회 월례회

일시: 11.16(월),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문의: (010)2780-4535

교육 | 모집

효성여고 2021학년도 입학설명회

1차: 11.14(토) 14:00

2차: 11.25(수) 19:00

장소: 효성여고 다솜관

신청: 홈페이지(선착순) / 문의: 235-7012

건학이념, 교육과정, 입시결과, 기숙사 등

대건고 2021학년도 입학설명회

일시: 11.21(토) 14:00

장소: 대건고등학교

문의: 입학홍보실, 235-4560

기회균등전형(국민기초, 차상위 등) 입학시

전원 장학금 지급, 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

효성초등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일시: 11.16(월)~20(금) 9:00~16:30

대상: 2014.1.1.~2014.12.31 출생 아동,

조기입학자 및 2020년 취학의무유예자

문의: 720-5500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 모집

전입학 설명회: 12.5(토) 14:00

겨울진학 예비학교: 2021.1.9(토)~10(일)

대상: 초6~중1 / 문의: (054)338-0530

가톨릭학술원 이창영 신부 초청 특강

일시: 11.17(화) 17:40(미사 17:00)

장소: 꾸르실료교육관 2층 대강당

주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결정권

참가비: 무료 / 문의: (010)7190-1258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

간호사 채용

위치: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읍내동)

문의: 간호과, 320-2750

http://www.tcmcch.co.kr

대구가톨릭요양원 시설명칭 변경

변경일자: 2020.11.1~

당초 시설명: 대구가톨릭치매센터

변경 시설명: 대구가톨릭요양원

문의: 616-2141

카리타스가정폭력상담소 다음 안내

내용: 가정폭력, 부부갈등, 심리상담

방법: 전화 및 사이버, 내방상담(무료)

문의: 253-1405~6

http://www.with1401.or.kr

대구주보 <말씀따라 사는 사람들>원고 모집

마감: 12.31(목), 메일 또는 방문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 추모 뮤지컬 초대

제목: 밥처럼 옹기처럼

일시: 11.21(토) 1일 2회 공연

(1회) 14:00 (2회) 17:00

관람료: 무료 / 접수: (010)3362-5616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 순번추첨결과 : 11.19(목) 대구주보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문자발송
- 주보광고접수 : 11.26(목), 대건관 2층 가정복음화국 회의실
- 문의 :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8~9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윤 (안젤로)
송 정 애 (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열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초혼, 재혼)
가나혼인잔치
25년 전통의 가톨릭전문결혼준보회사
전국대표전화 : 1566-6205
대구 : 070-4790-3888
서울 : 02-3141-3888
부산 : 051-817-3887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보건복지부
인중의료기관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 명 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의-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원룸,투룸 용달이사
안익기(바오로)
010-3514-3855
수성구 761-2484 서 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북 구 313-2484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딩)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야노)
전문의 이수윤(소피아), 홍정흠(대전안드레아)
☎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